

“우리나라에는 자칭 및 타칭 ‘매니아’가 너무 많다. 대한민국의 길거리로 나가면 비교적 지적인 사람들 가운데 영어로 ‘미친놈’이라고 선전하며 돌아다니는 도시인이 수도룩하고, 길거리뿐 아니라 사무실과 지하철과 음악 공연장과 영화관에도 ‘미친놈’이 너무나 많아서 좀처럼 마음을 놓고 다니기가 힘들 지경이다.”

작가 안정효씨(59, 이화여대 통역대학원 교수)가 최근 펴낸 《가짜 영어 사전》(현암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심한’ 영어사용 실태를 비판 대목이다. 그렇다면 ‘매니아’(mania)는 본디 무슨 뜻인가. 《웹스터 대사전》은 ‘mania’를 “1. 난폭하거나 격렬한 정신적인 장애로서, 비정상적인 흥분상태와 과격한 행동이 특징이며 2. 지나치고 집요한 열성이나 관심으로서, 강박관념이나 광기”라고 정의했다.

### 영터리 외래어 밝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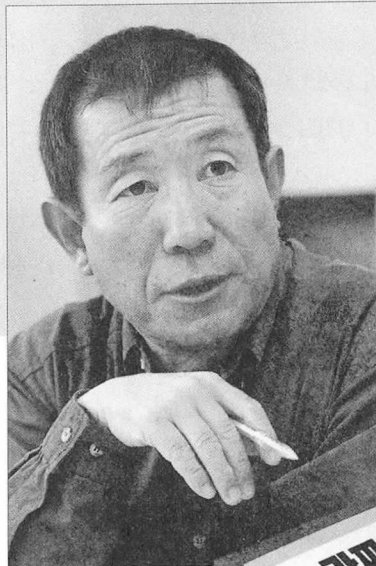
결국 ‘mania’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정신적인 ‘현상’이나 ‘상태’를 묘사한 단어다. ‘정신적인 상태’ 가운데도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이나 현상이다. 어느 광고문구에 적힌 ‘인터넷매니아’는 ‘정신병자들의 내통’쯤 되는 말이다. 한 중앙일간지에서는 ‘비빔밥 매니아 마이클 잭슨’이란 제목까지 붙였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 한 대형 출판사에서 펴낸 《한영사전》에는 ‘열광자’를 ‘a mania, a fan’이라고 정의했다. 안씨가 보기에 기절초풍할 일이다. 영영사전에는 없는 용법이 우리나라 사전에는 버젓이 올라 있으니 말이다. 이 책은 이처럼 우리가 쓰는 영어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영터리 불량’ 외래어인지 조목조목 밝혔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잘난 체하려는 경향 때문이죠. 예전에는 이른바 ‘문자 쓴다’는 말이 한자를 빌어 유식해 보이려는 것을 뜻했는데, 요즘에는 영어를 써야만 뭔가 폼 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문제는 폼잡는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반쪽짜리 영어, 튀기 영어, 쪽정이 영어라는 데 있습니다. 거의 만성질환이죠.”

## “우리말 오염의 주범은 쪽정이 영어”

《가짜 영어 사전》 펴낸 안정효 교수



안정효씨

현암사/A5신/896면/18,000원

안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번역문학가이자 ‘영어로 소설을 쓰는’ 작가다. 그는 20여년 동안 150권에 달하는 소설을 번역했다. 한때는 한달에 한권꼴로 소설을 번역해 ‘월간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현재는 중군위안부에 관한 소설을 8년째 영어로 쓰고 있다. 들쭉 가라면 서러워할 ‘영어통’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는 영어를 거의 쓰지 않는다.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쓰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됩니까? 한국인끼리 얘기할 때만큼은 온전한 우리말을 써야 합니다. 물론 외국인과 대화할 때는 영어를 제대로 배워서 써야죠.”

### 영어공부에 왕도는 없다

우리나라의 ‘영어열풍’에 대해서도 그는 비판적이다. 한때 지상논쟁이 붙었던 ‘영어공용화론’이나 초등학교 영어수업, 조기유학 등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는 것이다. 우리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남의 것을 따라하기에 급급한 작태가

국적불명의 영어를 가려뽑은 《가짜 영어 사전》에서 작가 안정효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된 영어를 지나치게 남발한다고 비판한다. 영어를 쓰려면 제대로 알고 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이 세계화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가 세계수준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참된 뜻의 세계화·국제화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외국에 팔 물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 영어를 배우는 것은 국력낭비입니다.”

최근의 베스트셀러 책 제목을 빌어 말하자면, 영어공부를 하지 마라는 말이다.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면서 제일 못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왜 그럴까. ‘영어 공부하는 법’만 배우고 실제로는 영어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든 비법은 없습니다. 영어공부에서도 비법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릴 적 처음 말 배울 때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한글 배울 때 문법부터 공부하진 않았을 겁니다. 말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자주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죠.”

— 박천홍 기자

